" 개척교회에 힘을 실어줘야! "

■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신다 하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것과 물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어느 시대나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를 바친다.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보이는 것이 교회 간판이 즐비한데 무슨 개척교회가 아직도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신학생 수가 범람하니 그들의 일터 마련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도 있다.

민족 복음화 위해 개척교회 더 필요해

민족 복음화라는 대의는 크게 외치면서 현재 기성교회만으로 민족 전체를 담을 수 있을까? 5천만 인구를 신자화 했다 가정할 경우 한 교회에 500명 평균 성도를 섬긴다 하면 교회가 10만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여서 50명 미만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다. 평균 50명 교인으로 5천만을 담으려면 교회가 100만 개는 있어야 한다.

잃어버린 양 없도록

현대사회에서 렌트문화가 확산되어 교회까지도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자손들이 섬기기보다 자기 편리한 교회를 찾아가 예배당을 빌려서(rent)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 우리 교회 개념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잃어버리는 양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려면 몇 개의 대형교회만으로 모든 성도를 품을 수는 없다.

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 오늘의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도 부지기수다. 그러면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는 성공한 목사고 그렇지 못한 이는 실패자란 말인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천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심한 박해와 옥에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고 바울은 실패자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종이 누구인가?

개척교회를 몇 군데 섬겨본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지만 개척교회 목회자의 강대상 앞에 놓인 의자의 방석은 목회자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어야 하고, 목회자의 발톱은 심방으로 빠져있기가 일쑤고, 머리와 허리는 하도 땅에 닿도록 숙이느라고 조 이삭처럼 굽어졌고, 다섯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만 명의 회중 앞에서 말씀 전하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부목사도 전도사도 없으니 공예배 뿐 아니라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365일을 혼자 인도하고 교회당 청소 관리도 담임목사 몫이다. 회사는 나 혼자 다녀서 집에 오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목회자는 출퇴근 시간도 없이 24시간 365일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부가 교회만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 사모님도 자녀들까지도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본을 보이며 엎드려야 하고 성도들 접대 위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야 한다. 예배당도 없는 교회는 상가 건물 전세로 들어가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예배당 옆의 사택은 커녕 예배실도 없는 처지에서 목회자의 주거지도 예배처와의 거리는 상관없이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오직 주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시 보게 되고 존경을 표하고 싶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해야

안디옥교회는 개척 선교사를 파송할 때 B급 목사가 아닌 자신들의 담임 격인 바나바와 대신학자 사울같은 최상급 목회자를 파송했다. 요즘은 성도들은 물론 젊은 목사님들조차 개척교회보다 규모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섬기고 싶어 하지만 개척 사명을 받은 엘리트들이 환경 때문에 받은 사명이 축소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대형교회들은 자신의 개척기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회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1384호] 2013년 10월 5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Pastor David John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8 :1-17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King's Miraculous Healing Power"	Pastor
* Hymn	90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야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욤,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 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룽,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7권 제42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10월15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성공적인 출발 "

■ 수 3:7~13

우리가 섬기는 서울교회에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까지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1. 신앙은 출발이 중요하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7절).

하나님은 무엇을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를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을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삼상 15:22) 고 말씀합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종하므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세워주고 나눠주시는 세 가지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수 3:7-8).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시어 이전보다도 더욱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 목표를 잘 정해야 한다

목표는 비전과 꿈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땅 들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목표에 대한 꿈을 갖는 사람은 그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에 이르기까지 말과 생각과 습관을 잘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다 함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매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주님의 몸 되신 교회는 그 지체가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없는 은사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 언약궤를 멜 준비를 해야 한다

출발을 잘 하고, 목표가 정확하다면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다 우리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은 홍해이고, 요단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한국교회는 무한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이면에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기만 할 뿐,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말씀의 법궤를 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주님께는 분명히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맺는 말

교회에는 교인, 신자, 성도, 제자 등 4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출발한다면, 문제가 온다할 지라도 주님께서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신 언약 하셨고, 언약하신 바를 다 지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직 말씀의 법궤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죽기까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안주훈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이강진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계 3:2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23(시 4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23(2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 61: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누가 가난한 자인가?··· 김철홍 목사
* 찬 송Hymn ······················96(9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시 119:169-170 ··· 인 도 자
찬 송········ 200(235) ········ 다 함 께
기 도 ································ 유기찬 집사
성 경······ 딤후3:14-17 ······ 인 도 자
세례식 ································ 이종윤 목사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맡 은 이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오직 성경만으로" ··· 설 교 자
* 찬 송········ 204(379)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석상화 권사
성 경······ 벧후 3: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재림과 소망"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수요Ⅰ부								
수요Ⅱ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오늘 공동의회 소집** /
   - 일시: 2017년 10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본당 2층
   - 안건: ①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②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
   - 참석 자격: 본 교회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2. 샬롬권사회 월례회 / 15일(주) 오후3시20분 502호
3. 스데반회 10월 월례회 / 15일(주) 오후3시30분 101호
4. 호산나 찬양대 연습 / 15일(주) 오후3시50분 602호

◈ 알 림

1. 오늘 공동의회 관계로 점심식사 시간을 11:00~12:00 / 13:30~14:30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2.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3.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4.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5.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6.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7.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9.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0. 의료 상담 / 김동건(치과), 김동준(내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1.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2. 금일 세례식 실시 / 10월 세례식이 금일 10월 15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 준비반 (602호)로 문의바랍니다. (010-7743-3223)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김철홍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S.T.M.)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전, 서울교회 협동목사

◈ 장 례

1. 故 홍근영님 (16교구 홍영미 권사의 부친) / 10월12일(목) 별세, 14일(토) 발인
2. 故 양문수 성도 (13교구 김영숙11 성도의 부군) / 10월14일(토) 별세, 16일(월) 천국환송예배
3. 故 김자권 성도 (13교구 김미성 권사의 부친, 서은석 집사의 장인) / 10월14일(토) 별세, 16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7명	266명	279명	1,422명	15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8일	헌금	22,802,170	
"	특별예배비		1,037,900
"	찬양운영비		505,000
"	교회학교운영비		1,068,000
"	선 교 비		33,180,450
"	소모품비		60,000
"	세금과공과		1,550,170
"	복리후생비		29,000
	수선유지비		2,584,400
	식당운영비		614,000
"	합 계	22,802,170	40,628,920